



『제사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앞혀진가람』 탐험

양주 회암사터 <하>



발굴寺址 10만여평 자연 불교역사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이 58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회암사터를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발굴이 끝나면 전시관을 지어 유물을 전시하는 등 발굴현장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사진=고명배 기자



○97년 가을, 산봉로 파괴됐다가 복원된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표적 제사지인 회암사터는 10만여평 발굴사지 그대로가 자연 불교역사박물관이다. 산등성이에 있는 삼사(三師)의 부도는 차라리 세상의 것 같지 않아 도술천 살림살이인 듯 아득하고, 오솔길을 내려와 총망성쇠의 진면목을 한눈에 바라보는 여덟 단지의 잔해들은 세월의 꽃잎인 양 분분하여 경이롭다. 바라보면 보석인 양 역사의 발 밑에 숨어 반짝이는 유물들은 하나같이 세월의 문신을 찍었다. 굵고 딱딱한 폐허의 장식같은 문신을 찍었다.

절 터 맨 위쪽에서 폐허의 현장을 바라보며 회암에 잠기는 것은 키가 경중환 회암사터 부도탑(경기도 유형문화재 52호)이다. TV드라마 '여인천하'의 어머니라 칭송받은 문정왕후가 왕실의 이름으로 귀의했던 허응당 보우대사(佛雨, ?~1565년)가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1472년 회암사를 중창한 처안(處安)대사의 것이라는 두 갈래 말이 있으나 아직도 그 주인공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허응당 보우. 그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요망한 승려라는 말과 '천고에 돌도 없는 지인(知人, 성인)'이라고 극찬한 서산대사의 말처럼 극단의 두 경계를 밟는 인물이다. 본래 육신도 주인이 없거늘 하늘며 부도의 주인을 가리려는 속세의 수고와

폐사지에도 신도가 있다. 때맞춰 찾지 않으면 심신이 불안하여 기다리는 이 없어도 문득 찾아가 불제자의 예를 갖추는 이들이 있다. 양주 회암사터는 언제 찾아가도 몇 사람의 순례자들이 눈에 띈다. 어깨를 스친 적 없어 인연을 물을 수 없고, 등록된 명부도 없어 도반의 미소를 건낼 수 없다. 회암사터는 그런 곳이다.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도들이 찾아가 불전(佛殿) 대신 돌탑 한줌 올리고 그리움과 희망을 함께 공양하는 그런 곳이다.

못내 미덥지 않은듯 회암사터 허리 긴 부도탑은 하대석마다 천마들을 수놓아 무심히 운회의 원을 그리고 있다. 화려한 무차대회(無差大會)에 절대 후한자였던 문정왕후가 죽자 급기야 제주도로 유배가 목사 변협에게 죽임을 당한 보우의 운명과 함께 회암사의 운명도 그렇게 불길에 휩싸인 채 무상의 강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회암사터 여덟 단지는 모두 구획을 다시 긋고 칸간이 주초를 되들려 놓았다. 경기도가 2008년까지 580억원을 들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회암사터는 그 기대만큼이나 주목받는 유적들이 화려하다. 6단지에 위치한 서승당 구들터는 우리나라 최대의 것이다. 경남 하동 칠불사(七佛寺)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완벽한 것으로 고건축학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회암사터는 현보산 아늑한 계곡에 천수담 같은 토단을 쌓아 조성되었는데 북서쪽,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을 사역내로 끌어들이 지상으로 흐르게 하는 자연천화적 조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261칸의 한 칸 처마 끝에 노닐던 목어들이 그 비늘을 씻었을 법한 이 집수로의 물은 6단지부터는 지하로 연결된 배수로로 길을 돌려 사지의 수맥을 풍요롭게 하였다. 그 기능이 참으로 완벽하고 치밀하여 옛 사람들의 손재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단지 동쪽 끝에는 거대한 석조와 함께 맺들(경기도 민속문화재 1호) 2기가 노출되어 있다. 맺들은 소가 영애를 지고 나락(落)을 태질하던 것이다. 어깨가 부르르도록 회암사 대종을 위해 맺들을 돌리던 농우(農牛)는 지금쯤 그 복안 공덕으로 어느 절 대종이 되었을 것인가. 2천여 권속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였다는 회암사 살림살이는 보통을 넘었을 것이다. 이 무법 전국을 지나는 승려들에게 어느 절 수좌나고 뭘으면 한결같이 회암사 사문이라고 하였다는 말은 빈 말은 아니었던 듯 하다.

회암사터는 불 밝힌 그 때도 밝았고, 불 꺼진 그 뒤에도 환하다. 각 단지마다 1개소 내지 3개소의 정료대가 있어 현보산 청승들의 승진을 굶어 붙을 밝힌 회암사의 야경은 궁궐의 안마당 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으리라. 불 꺼져 싸늘히 식은 회암사터 정료대 위 초가를 햇살이 눈부시다. 태조 이성계가 자식들의 왕권다툼에 밀려 회암사에서 회한(悔)의 나날을 보낸 때도 현보산 능선의 일월성신들은 한없이 축수를 밝혔으리라.

태조 이성계는 비록 대궐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으나 또 다른 대궐인 회암사를 중창하고 부처님전에 귀의하였다. 궁궐의 모양을 본 떠 지은 회암사터는 왕실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고 있다. 2단지 계단 정면의 태극문양도 그렇고, 드넓은 터의 장려한 석축들, 무수한 파편으로 출토되는 청기와와, 532개나 되는 주춧돌만 보아도 그 품격을



○회암사터에서 발굴된 유물들. 왼쪽부터 사계방향으로 백자(白瓷)동자상, 불두(佛頭), 용두머리.

것이다. 구들이 무엇인가. 구들은 세상을 따듯이 덮어주는 것이다. 한 때 역사의 아랫목을 따듯이 덮으며 고해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느끼게 했던 회암사지 구들터는 이제 온전히 형체를 간직한 채 또 다시 역사의 인방에 군불을 지필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구들은 우리민족의 원초적 문화유산이다. 중국 동북부의 '장항(長坑)' 보라도, 로마시대 목욕탕을 덮었던 '하이퍼코스트' 보라도 한반도 남북 땅 웅기 지방 웅집터 구들이 훨씬 오래 전의 일이고 정교했던 것이다.

○회암사터 여덟단지중 6단지에 위치한 서승당 구들터 우리나라 최대의 것으로 완벽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서승당 구들장 최대·완벽...고건축학계 주목 거대한 맺들·정료대 당시 살림살이 짐작케

짐작케 한다. 조선은 승유배불을 국시로 하였지만 실은 외유내불(外儒內佛)을 통치이념으로 한 국가였다. 태조 이성계는 물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도 회암사에서 불법을 닦았고, 성종과 명종 때도 불심 깊은 왕실 보살들이 회암사를 빈번히 왕래하였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불법의 나라인 것을 조선은 건국한 이성계는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무너지는 집에서 나오는 현몽을 받으면서 알아차렸을 것이다.

제주도로 끌려간 보우스님이 불귀의 객이 되고 회암사가 유생들에게 유린되어 역사의 이통 속으로 사라진지 300여년 뒤 회암사는 또 다시 유생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공주사람 이용준(李隆準)이 심화상의 부도와 비를 제거하고 선조

의 묘택으로 삼고자 술사인 조대진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유물을 훼손한 것이다. 이 일은 7년 뒤인 1828년(순조28) 세상에 알려져 이용준과 조대진은 섬으로 유배가고, 그 해 절터 북쪽 현보산 중턱에 오늘날의 절 이름을 이은 회암사가 다시 세워지게 됐다. 이 때 망가졌던 삼사의 부도와 비도 능선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 수난 과정에서 지공선사와 무학대사 부도비 몸들은 영 복구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경기도가 수립한 회암사터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2백44억원, 발굴조사비 44억원, 전시관 건립비 1백억원 등을 들여 회암사터 발굴 현장을 관광자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존하는 사찰도 아닌 제사지 발굴에 이와 같은 공력을 투입하는 것

을 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불법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에 안목이 있는 나라임을 엿보게 한다. 회암사터의 발굴은 제사지 정책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레미콘 공장과 섬유공장 등의 이전 및 철거는 시급한 것이고 가건물인 전시관과 교육장은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 보광전 정청, 서방장 사문, 정문 등에 대한 복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부른 복원은 원형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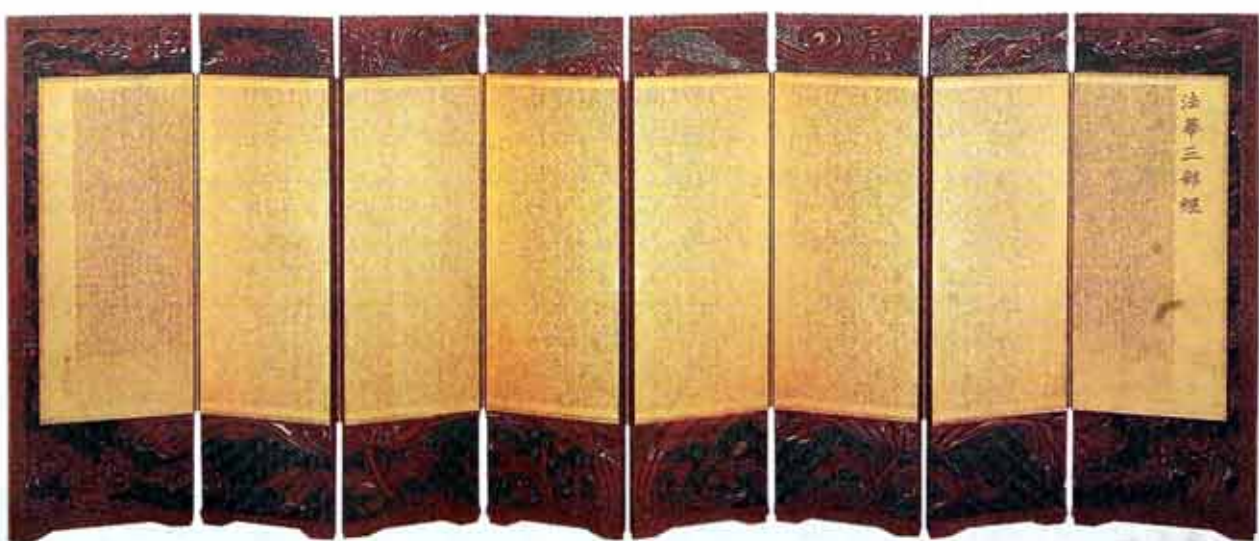
더불어 불교계도 회암사터의 발굴과 역사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발굴작업의 앞뒤에 주어진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절을 짓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발굴하는 것도 불사이다. 그리하여 경기도박물관에 임시로 옮겨진 선각왕사비도 불교박물관으로 되돌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안성 봉암사터 편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특징

- 법화삼부경(무량외경 3품, 도법연화경 28품,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1품) 8만 위에 또렷이 새겨진 금니 4천여자를 8폭 금속형틀판 왕각으로 새겨서, 그 위에 손금으로 도금하여 조성한 웅장하고 장엄한 불공(佛工)입니다.
- 법화경의 공덕을 아시는 스님과 불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본 병풍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되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하였으며, 본 병풍의 소장자는 그 이름을 금속판에 새겨서 손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뒷면에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 병풍은 한품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불량이 높아, 일년에 10점정도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필요하신 분에게는 본 병풍의 커다란 그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규격>높이:152cm, 길이:366cm 무게:70kg



전면, 중면, 후면, 뒷면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 334-9490, 334-9491
야간: (031) 706-3060
경기도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법당



요사채



거실, 안방



제사, 차려